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공무원들*

이근식 행자부장관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 등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무원들을 발굴 격려함으로써 따뜻한 세상만들기를 전개하고 있다

금년 4월초 복무감사관실에 「모범공무원 발굴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구·부산 종합감사시 발굴된 수범사례와 행자부 홈페이지에 추천된 모범공무원 사례를 확인한 결과 조직내 외에 귀감이 되는 공무원 11명을 발표하고 인사우대토록 소속기관에 통보하였다.

모범공무원으로 발굴된 대상자들은 지방공무원·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철도공무원·체신공무원 등으로 그중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례별 모범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소년소녀가장·장애인·독거노인 등 대상 봉사활동]

○ 유 영국 (충북 영동소방서, 소방장, 51세)은

- 소년가장으로 어려운 생활을 한 경험 때문에 81년부터 20년간 소년소녀가장 15명에게 1천5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 지원대상 학생이 졸업후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찾아올 때 큰 보람을 느낀다며 행여 이번일로 지원대상자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안타까움을 표시

○ 장 현순 (경기 평택보건소, 간호 7급, 42세, 여)은

-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유인성(당시 28세)씨를 98년부터 2년동안 욕창·대소변 처리등 방문·간호한 결과, 그는 현재 휠체어를 타고 새삶을 영위하고 있음

○ 엄 기호 (충북 제천시 역전우체국, 우편 8급, 39세)는

- 성직자의 꿈을 가졌던 자로서 99 제천시 금성면 자기집에 방 8개의 조립식 복지시

*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 「모범공무원발굴 전담팀」이 찾아내어 선양한 사례별 모범공무원을 소개하는 것임.

설(요한네 집)을 건립하여

-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는 노인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있는 장애인 9명과 함께 생활
- 장애인과 노인들을 부모처럼 모신다는 소문에 100만원을 줄테니 자기 부모들을 모셔달라는 청탁이 쇄도하고 있으나 거절함

○ 이 홍교 (강원 소방본부, 소방경, 39세)는

- 불우했던 청소년시절에 주변의 도움을 보답하겠다는 생각으로 2000년 12월 모범공무원 선정후 3년분 수당 108만원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동해시민장학회』에 기탁

○ 주 수환 (부산 연제구 연제8동장, 지방5급, 49세)은

- 주민들이 1구좌당 1,000원씩 후원하는 『부녀회 이웃돕기 계좌』를 마련하여 매월 불우한 20세대에 180만원 상당액 지원
- 관내 모녀 시각장애자를 『우리동네』 소식지등에 게재하고 KBS 『이것이 인생이다』 등 방송에 소개하여 『새광명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 만들기]

○ 이 상만 (춘천 백양리역, 철도원 8급, 55세)은

- 2001.3.29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신장을 이식하고 회복중에 있으며 신장을 이식받은 여자의 남편이 다른 환자에게 신장을 기증하는 등 3명의 『릴레이식 신장기증』이 이어지고 있음

○ 안 형모 (경기 남양주경찰서 인창파출소장, 경위, 42세)는

- 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99.12월 『따뜻한 세상만들기』 사이트 개설 (www.ddase.com)
- 전국 3,000여 복지시설을 누구나 찾기 쉽도록 하여 “야후코리아” 주관 2000년 공익부분 최고사이트로 선정되었으며 총 1,150명의 봉사회원들이 활동중임

○ 이 용준 (전북 임실군청 재무과, 기능 8급, 50세)은

- 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피가 모자란다는 방송을 듣고 헌혈을 시작한 후 2001년

까지 144회의 헌혈을 하여(전북 최다헌혈자) 「헌혈전도사」로 통하며 어려운 이웃에 헌혈증 기증

○ 김 동춘 (부산 남구청 총무과, 기능 10급, 35세)은

- 2001.4.1(일) 15:00경 경남 양산시 내원사 근처 계곡에서 가족들과 식사중 2m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박정규(7세 울산거주)를 발견하고 옷을 입은 채로 뛰어들어 무사히 구출하였음

※ 박정규 부모가 물에 젖은 김동춘 핸드폰을 교체해주려 왔을때 알려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예산절감]

○ 홍 순익 (대구 북구청 세무과, 세무 6급, 40세)은

- 대형 슈퍼마켓에서 활용하는 바코드를 지방세 고지업무에 접목시켜 북구청에서 연간 120만건의 고지서 발급시 3천만원의 예산절감이 기대 (2000.8~12월 : 750만원 절감)

※ 우체국에서는 바코드 사용시 우편요금을 최고 18% 할인

○ 정 인철 (부산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 41세)은

- 항구도시인 부산지역의 특성상 다량 발생하는 폐어망을 정화조에 투입함으로써 미생물의 생장을 촉진하여 오폐수 분해효과를 30% 증가시키고 폐어망 처리비용 등 예산절감이 기대

한편, 발굴된 공무원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겸손해하고 지원대상자의 자존심에 상처가 될까봐 조심하고 있으며, 동료 공직자들은 이번일로 따뜻한 마음이 형성되는 등 사무실 분위기가 바뀌고 있으며 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경직되었던 공직사회에 사기양양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자부에서는 이번에 발굴된 모범공무원에게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예산절감 성과급 지급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모범공무원 발굴 전담팀」을 제도적으로 운영하여 공직사회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범공무원을 주기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